

IDC : PC 시장 2000년까지
두배로 성장 예상

전세계 PC시장 규모가 지난해 5,800만대에서 2000년에는 1만 1,600만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 업체인 International Data Corp.(IDC)는 Boston에서 최근 개최한 "Directions'96"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앞으로 PC시장의 성장은 아시아 지역, 노인층 및 여성 기업가(Women in Business; "WOBO")부문이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IDC는 Hewlett-Packard(HP)가 2000년에는 세계 최대의 PC업체로 부상할 것이며, Acer, Compaq, Dell, Fujitsu/ICL, NEC, Toshiba, 등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DC에 따르면, Bell, Apple 등의 순서로 PC 업계의 시장 서열이 뒤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IDC에 따르면, Micron, Gateway 2000, AST Research, Digital Equipment Corp.(DEC) 등도 주목해야 할 PC 업체들이다.

올해 PC 업계에는 일본이 가장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본 PC 시장의 올해 성장률은 45.8%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는 일본 PC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8.8%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기간중 아시아-태

평양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6.1%, 미국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6%, 남미 시장은 21.3%, 서유럽 시장은 8.9%,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은 13.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Microsoft, AOL에 인터넷
SW라이선스 추진

Microsoft가 자사의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미국 최대 규모의 라인 정보서비스 업체 America Online Inc.(AOL)에 라이선스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Microsoft는 자사의 "Internet Explorer" 소프트웨어를 500만명에 이르는 AOL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Microsoft의 움직임은 경쟁사 Netscape Communications Corp.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Netscape는 AOL과의 제휴를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Microsoft의 Internet Explorer를 라이선스한 CompuServe Inc.와도 제휴 가능성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etscape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발업체로 해당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나, Microsoft가 인터넷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한 이후로 Netscape의 장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Data Translation, MPEG-1
비디오 인코더 시장 진출

Data Translation사는 아날로그 비디오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 CD-ROM에 수록 하거나 World Wide Web(WWW)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MPEG-1 비디오 인코더 "Broadway"를 개발, 5~6월경부터 995달러에 시판할 예정이다.

Data Translation에 따르면, Broadway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용 아답터와 비디오 편집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으며, 5,000달러 이상에 시판되고 있는 하드웨어 방식 비디오 인코더 제품들과 같은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Data Translation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bway.com>에서 입수할 수 있다.

Motorola, 중국에 아날로그
셀룰라 장비 공급

Motorola는 8,200만 달러 상당의 아날로그 셀룰라 통신장비를 중국에 공급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Motorola에 따르면, 이번에 수주된 장비는 Beijing, Shanghai 및 Sichuan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Motorola는 6,30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셀룰라 통신

장비를 중국에 판매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Cyrix, PC 시장 진출

Intel 호환형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업체 Cyrix사가 PC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Cyrix는 자사 "6X86" 프로세서를 장착한 PC를 General Motors (GM) 산하 Electronic Data Systems Corp. (EDS)를 통해 생산해 시판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PC업계에도 Cyrix칩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Cyrix는 PC 업계에도 Cyrix 칩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Cyrix는 PC 사업 전략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수개월 동안에 최대 10만대 정도의 PC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업계 분석가들은 Cyrix가 PC 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이 1억달러 이상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Compaq Computer를 비롯한 주요 선발 업체들마저 최근 고전하고 있는 PC 시장에 Cyrix가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진출하는 것은 Cyrix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Cyrix의 제품은 경쟁사 Intel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개한 "Intel Inside" 광고 캠페인에 늘

려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Cyrix의 지난해 매출액은 1994년 보다 7% 감소한 2억 2,800만 달러에 그쳤고 순익은 1994년보다 59% 적은 1,560만 달러를 기록했다. Dataquest 소속 분석가 Kimbal Brown씨는 PC사업에서 실패할 경우 Cyrix는 더욱 큰 곤경에 처할 것이나, 획기적 조치를 추하지 않는다 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Matsushita, 14인치 TFT LCD 대량 생산하기로

Matsushita는 14인치 TFT LCD(Thin Fil,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를 대량 생산해 시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Matsushita는 자사 14인치 TFT LCD의 가격이 대당 40만 엔 미만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Matsushita는 14인치 TFT LCD를 월 3만 5천개씩 생산하고 있는데, 이 물량은 이 회사가 개발중인 컴퓨터 터미널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Seagate, 23.4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발표

Seagate Technology는 23.4GB의 데이터 용량을 갖춘 "Elite 23"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드라이브는 데이터 용량이 가장 큰 제품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최대 용량의 제품보다 2.5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록할 수 있다.

Seagate는 Elite23 시제품을 올해 3/4분기부터 공급할 계획인데, 제품 가격은 아직까지 책정되지 않았다.

Sony, 디지털 비디오 제작용 PC 개발

Sony는 디지털 비디오 제작용 PC 시스템을 이번 주 선보인다.

"Interactive PC"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Intel 프로세서와 Microsoft의 Windows 운영시스템 플랫폼에서도 비디오 전문가들이 제작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시스템은 Intel의 "Intercast" 기술 또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Intercast는 케이블 TV 또는 공중파 TV 방송 PC를 통해 수신할 수 있게 해준다, Sony는 이 제품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LAs Vegas에서 열리는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 Convention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Sony, DVD용 반도체 대량 생산 추진

Sony는 차세대 DVD(Digi-

tal Video Disk)를 비롯한 디지털 전자제품에 사용될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Kagoshima Prefecture의 Kokubu에 있는 공장에 생산 라인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Sony의 새 라인에는 3백억 엔이 투입되는데, 이 라인은 내년 하반기부터 월 1만장의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Sony는 시장 여건에 따라서 SRAM(Static RAM)도 이 공장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Sybase, WWW용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Sybase사가 World Wide Wed(WWW) 응용 프로그램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추가시켜 주는 소프트웨어 "Media.Splash"를 무료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Sybase 산하 Powersoft Corp.가 개발했는데 WWW 스크린상에서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그래픽 파일을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전환시키는데 사용된다.

Media.splash는 Windows 95 및 Windows NT 3.51 운영시스템을 지원하며, Media.splash를 사용해 작성된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데는 "media.play"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현재 Sybase가 WWW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media.splash와 media.play

의 알파 버전인데, 이들은 <http://www.powersoft.comcom/media.splash>에 접속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Fujitsu, 초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 개발

Fujitsu는 초당 1.1-Terabits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WDM)"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데이터 용량 1.1-Terabits는 일간신문 250년 분에 해당한다. Fujitsu에 따르면, WDM 기술은 데이터 전송 용량을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 수도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기술은 차세대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HP, X터미널로 인터넷 시장 공략

Hewlett-Packard(HP)는 X터미널에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 인터넷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HP는 기존의 "Envisex" 및 "Entrial" 시리즈 X터미널에 MPEG비디오 카드와 오디오 기능을 추가시켜 인터넷 접속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HP의 X터미널에는 Intel의

"i960" 프로세서가 사용되며, 2000~5,4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업계 분석가들은 HP의 이러한 전략이 매우 재치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인터넷 접속기기 시장의 전망은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HP전략의 성공 또한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Sharp, 고속 CD-ROM 드라이브용 레이저 개발

Sharp는 8배속 CD-ROM 드라이브에 적합한 신호 판독용 레이저 "LTOH48L"과 "LTOH48T"를 개발, 3월초부터 시제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Sharp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레이저는 모든 광학 기능을 한 개의 칩을 사용해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보다 작고 가벼운 반면 신호 판독 속도는 두배 더 빠르다.

Sharp는 이들 두 제품을 월 50만개씩 생산할 계획이다.

ORACLE : UNIVERSAL SERVER, NC시제품 발표

Oracle사는 자사의 "Oracle 7"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에 World Wide Wed(WWW)서버, 문서관리, 메시징 및 멀티미디어 서버 기능을 추가시킨 "Oracle

Universal Server”를 시판한다고 San Francisco에 26일 개최된 Oracle Developer Conference에서 발표했다.

Oracle에 따르면, Universal Server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범용 서버로서, 모든 종류의 네트워크 상에서 수천명의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Universal Server에는 “Enterprise Edition”과 “Workgroup Edition”이 있는데, 이들에 비디오펀, 메시징 기능들을 옵션 형태로 추가시킬 수 있다. 또한 Oracle은 인터넷 접속용 컴퓨터 “Network Computer(NC)” 시제품을 공개했는데, 500달러에 시판될 NC에 소요되는 부품 비용은 약 250달러에 해당한다.

NC에는 영국 Advanced RISC

Machines(ARM)이 개발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사용되는데, 하드디스크와 모니터는 NC에 포함되지 않는다. Oracle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oracle.com>에서 입수할 수 있다.

Matsushita, 대화형 케이블 TV시스템 개발

Matsushita는 기존의 케이블 TV네트워크를 이용, 사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대화형 케이블 TV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4월부터 Tokyo에서 실시되는 차세대 케이블 TV 시험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Matsushita에 따르면 일반 TV 수상기에 연결시켜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약 5만엔에 시판될 예정이

다.

NEC, 입체 그래픽스 칩 시제품 4월부터 공급

NEC는 Windows95 운용시스템을 지원하는 입체 그래픽스 칩 “Power VR”을 개발, 4월부터 시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C는 이 칩의 시제품을 1만 2,000엔에 공급하기로 했으며, 1998년까지는 1천만개의 칩을 판매해 연 400억엔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NEC는 NEC Home Electronics Ltd.가 Power VR칩을 장착한 PC용 아답터를 올 여름 일본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Namco Ltd.는 Power VR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클라이언트·서버

PC·워크스테이션(WS) 등 주로 소형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시스템의 방식.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와 프린터를 네트워크상에서 공유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갖고 「클라이언트」는 이같은 기능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서버에 워크스테이션, 클라이언트에 PC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들어 성능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PC를 서버로 사용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어느 것이나 종전의 범용기에 의한 집중처리방식에 비해 대단히 낮은 코스트로 하드웨어를 갖추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정보시스템의 주류가 되고 있다.

다만 처리의 비중을 서버·클라이언트 어느쪽에 둘 것인가, 또는 이(異)기종간의 접속성은 어느 것이 더 앞서는가 등의 검토에 많은 시간과 사람의 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같은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급선무다.